

6-2-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14-22

말씀제목: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와 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방민족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삼 년을 걸었던 것처럼 앗시리아 왕도 이집트의 간힌 자들과 에디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불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에디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사 20:2-5)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말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렘 5:1-2)

그들은 왕으로부터 제사장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누구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생활 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셔서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의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겔 14:6; 18:30)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 앞에 선지자 침례인 요한을보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사 40:5)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전파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Kingdom of heaven)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그러나 그는 당시 위선자들과 헤롯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실을 아신 예수께서 그를 이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만 하면 천국(하늘의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 자신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먼 훗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 환란 때에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요 5:43)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에 하늘의 왕국(천국)이 임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이른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지난 이천 년 동안 세상에서 엄청난 박해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천국이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마 11:12)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던 하늘의 왕국인 천국은 사탄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곳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 탈취되어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 환란 끝에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찢려 죽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처절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국 즉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찢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그 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슌 12:9-10; 13:1-2)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후부터 세상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제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요 16:8-9)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행 17:30)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책망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중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혈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계 3:14-17.19)

지금이야말로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종교행위를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안에서 종교행위들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복수하시러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예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얼룩지게 할 것이다.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사 63:1-4)

아멘! 할렐루야!